



곡성 '1004장미공원' 인파      26일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내 '1004장미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전 세계 장미 1004종, 1000만 송이가 만개한 장미공원에서 휴일 오후를 보내고 있다. 제3회째인 세계장미축제는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된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 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 3500세대 구도심 아파트 재건축으로 짓는다

국제수영연맹 유치 조건...송정 주공·운암 3단지 등 입지 촉각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가 유력시되면서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FINA)에 약속한 3500세대 규모의 선수촌 아파트 건립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수촌 건립이 현실화하면 노후화가 심각한 광주 구도심 아파트 재건축사업도 활기를 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9년 7~8월 중 광포연심(16일)대회와 마스터스(15일) 등 31일간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조건으로 국제수영연맹에 3500세대 규모의 선수촌 아파트 건립을 약속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참가 규모는 202개국에서 챔피언십의 경우 선수와 기자, 운영요원 등 7000여명, 마스터스 대회는 1만3000여명에 달한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 총회에서 광주가 유치도시로 확정될 경우 3500세대 규모의 선수촌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광주시는 선수촌을 신규 조성하지 않고,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선수촌과 동일한 방식인 아파트 재건축을 활용할 계획이다. 민선 5기 우수 행정사례로 꼽히는 재건축을 통한 U대회 선수촌 조성은 국제스포츠 사상 처음 시도한 것으로, 예산절감과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국내 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선수촌 아파트

를 지어야 하며 그 방식은 U대회 선수촌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재건축 방식은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면서 시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예상 부지는 일단 메인 경기장인 남부대학교 수영장 인근 중 대단지 조성이 가능한 넓은 부지의 아파트가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남부대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9.07km)인 광산구 송정 주공아파트(1983년 준공·952세대)를 비롯한 12분 거리(5.28km)에 있는 북구 운암 주공3단지(1984년 준공·2020세대) 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2014년까지 철거하고 임시건물을 지어 U대회행사지원시설로 활용

한 뒤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구 염주 주공(1985년 준공·1118세대) 아파트도 24분(10.55km)거리로 검토대상에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조성 당시에는 메인경기장(광주 월드컵 경기장)과 도보 5분, 광주공원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 등의 제한 조건이 있었으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계획에는 이 같은 거리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광주시내 17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두 검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유력한 선수촌 후보 아파트들이 빠른 재건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보상 등을 노린 주민 반대가 있을 경우 광주 도심 곳곳에 위치한 중·소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를 묶어 3500세대를 건설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檢 '전두환 비자금' 찾고도 추징 안해

2004년 차남 재용씨 조세포탈 재판서 73억 파악  
최재성 의원 전두환 추징금 미납 방지법안 발의

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 16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며 오는 10월 추징시효가 만료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원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3면>

당시 재판부는 재용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해 73억

를 맡는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6일 권범으로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 전 대통령이 편법증여한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취득한 사람한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료 의원 24명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재산이 모두 29만원이라고 밝히더니 최근 1000만원의 모교발전기금을 내고, 골프와 양주파티를 즐겨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표기자 jkpark@연합뉴스

## 5·18 왜곡 신고 이틀만에 1300건

광주시 신고센터 개설...생각보다 훨씬 심각  
포털 사이트·사진·서적 등...비하글도 여전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훼손사례 인터넷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이틀 만에 전국에서 1300여건의 신고·접수됐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여전히 신고센터에까지 5·18을 폭동 등으로 비하하는 글을 남겨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26일 오후 5시 현재 12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시간 신고센터를 다녀간 누리꾼만 4475명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사례들은 주로 최근 인터넷에서 5·18 왜곡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간베스트저장소'를 비롯

후한 다음 아고라,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개인 블로그, 게임사이트 게시판 등을 이용해 작성된 게시글과 사진, 동영상이다. 또, 각종 서적과 인터넷게임 사이트 등에서 5·18을 왜곡·훼손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해 광주시민을 선동해 일으켰다 ▲희생자 대부분이 시민군에 의해 살해됐다 ▲희생자 시신 사진을 흉여에 비유 ▲희생자 관을 옮기는 사진을 '택배기사가 바쁘네'로 표현하는 등 죽은 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이다.

신고자인 원모씨는 "비밀출판사가 출간한 '역사로서 5·18'은 총 4권으로,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김모씨는 "마비노기만 게임사이트 내에 '광주폭동'이라는 그룹(길드)까지 활동하고 있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처벌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5·18 왜곡·폄하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방대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법률·사이버대응팀과 신고사례를 검토한 후 법적 대응을 통해 왜곡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6월호  
5월 25일 발매

키농샤  
매이드인 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둬보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기획특집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다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키버스토리  
매이드인 광주  
브랜드 공연  
성공해법은?  
실매 거둬보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다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스페셜 인터뷰 | 영화감독으로 '인생 3막' 올린  
영화인 김동호의 꿈과 삶

마주앉은 책과 삶 | 건축가 승효상  
비움으로 가득 채운 사유의 건축

이달의 작가 | 소설가 공선옥  
"삶이 문학과, 문학이 삶이다"

세계미술관 기행 |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명품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MoMA

문화역사기행 | 부여 낙화암  
무심히 흐르는 백마강에  
꽃 지듯 흩날린 백제의 생명들

문화동행, 편편클럽  
광주전남별사랑  
밤하늘 보면 행복해지는  
이들의 '별' 이야기

행복한 컬렉터  
해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 원장이 수백 점의  
다기에 담은 차사랑

리빙 & 스타일 | 당신의 아웃도어 스타일 믿을 만한가?  
애호가·전문가의 네일아트 예찬 "빠져 나오기 힘든 매혹"